

2018. 08.24

미주동창회 장학금

그린프로젝트 최종 에세이

외과학 실습을 통해 알아본
미국의료와 한국의료의 차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조승현

Introduction

2018년 7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Washington DC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에서 실습을 하였다. 기존의 계획은 Emergency medicine department에서 응급의료의 전반과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가 전문으로 연구하는 healthcare policy 및 미국 의료체계에 대한 실습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부득이 Surgery department로 배정이 되어 계획을 바꿔 미국의 수술과를 경험하고 한국과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부속 병원으로 Washington DC의 Foggy Bottom area에 위치하고 있다. 1824년에 개원했으며 현재 메인 건물은 2002년에 새롭게 지어져 총 371 bed의 규모의 병원이다. Washington DC의 첫 general hospital이며 긴 역사를 자랑한다. 황열이 모기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을 밝힌 Walter Reed 등 여러 유명 의사를 배출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의료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1981년 Ronald Reagan 대통령 암살시도로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은 직후 GW hospital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아 생명을 유지한 사건이 있는 후 응급실을 'Ronald Reagan Institute of Emergency Medicine'으로 바꿔 유명해진 바 있다.

연구 목적 및 방법

학생실습을 통해 미국의료와 한국의료의 차이를 느껴보며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의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의료와 의료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4주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에서 외과학 실습을 현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느낀 바와 research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쓰고자 한다. 본인은 Surgery department 중에서도 General Surgery 파트에서 실습을 돌았으며 Dr. Paul Lin 및 Dr. Khashayar Vaziri의 지도를 받았다.

결과 및 결론

학생실습

미국의 의과대학 실습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임무와 책임이 더욱 많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3학년 학생들은 한국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매일 아침 회진에 참여하며 환자보고를 하고 학생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그대로 진료에 쓴다. 물론 주치의 또한 환자파악을 하지만 urine/drain output 체크나 세세한 review of system이나 physical exam과 같은 경우는 오롯이 학생 담당이다. 마치 한국에서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와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학생보다는 병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주말에도 출근하여 환자를 보았으며 당직 또한 2주에 한번씩 서며 여러 가지 일을 배웠다. 4학년의 경우 관심 있는 과에 선택실습을 돌게 되어 더욱 많은 책임을 안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된다. Acting Intern (AI)라 4학년 학생들을 칭하여 제2의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 팀이 맡고 있는 모든 환자를 시끼리 나눠서 커버하여 환자파악에서 기본적 술기까지 행하게 된다. 미국의 General Surgery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Bariatric patient들이다. 이들의 Gastric sleeve operation 후 fluid challenge를 해보는 것을 AI들이 책임지고 담당했으며 수술부위 드레싱을 바꿔주는 것 또한 주 임무 중 하나였다.

수술실에서의 역할 또한 한국에서보다 넓다. 모든 수술에서 항상 한 명의 학생이 스크럽을 서게 된다. 학생 한 명, 레지던트 한 명, 교수 한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수술이 진행되며 3명 모두 임무가 주어진다. 학생의 경우 리트랙터, 타이컷뿐만 아니라 석션, 타이, 복강경 등 조금 더 많은 임무가 주어진다.

학생에게 책임을 주는 방식의 실습은 professionalism을 일찍부터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처음 적응할 때부터 의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배우며 바로 병원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 하였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의 실습 또한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가르치며 이를 행하도록 권장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책임이 있고 여러 술기를 환자들에게 직접 행하며 직업의식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관찰자 입장의 교육에서 그런 의식의 고취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병원의 인턴으로 채용된 후 학생 때와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적응이 어려운 사례도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례에 따라 professional로서의 첫 시작은 차후 그 의식을 consolidate 하는 것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의대의 또 다른 장점은 실습을 도는 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몇 가지 일들을 해보며 더욱 진료선택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general surgery 실습을 돌면서 가장 인상 깊어 느꼈던 것은 바로 수술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차다'는 것이었다. 본교에서 외과실습을 돌 때 대부분의 수술방에서 수술필드에서 떨어져 참관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발짝 뒤에서 수술을 보기 때문에 수술 방법과 과정 전반에 대하여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매 수술 직접 스크럽을 서서 laparoscope를 들거나 타이와 컷을 하며 수술을 보조하는 것에 비하

여는 'surgeon'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현장에 뛰어들어 직접 일을 해봄으로써 해당 과의 일원이 되어보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대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을 거치지 않는 조금이나마 짧은 수련과정이 가능한 것이 이러한 의대교육에서 기반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건이 갖춰져야 실현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 병원들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교육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님들이 미국과 같이 매일 아침 학생들 발표에 피드백을 해주며 시간을 투자하거나 수술 시 다소 서툰 학생의 손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스케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실정 상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미국 교육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기본 술기와 병원 생활에 focus가 되어있어 의료전반에 대한 더욱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거나 학문적으로 깊은 공부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 유리하다. 적절한 balance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별 특징과 배워야 할 술기나 지식에 따라 focus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 전반 및 수술

미국의 병원 분위기, 의료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것과 수많은 부분에서 판이하게 달랐다. 하지만 그 중 두 가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수술과를 돌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었던 수술 방식의 차이이며 둘째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인 bedside manner이다.

미국과 한국의 수술 진행 방식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도제식 교육을 탈피해 레지던트와 교수가 모든 상황을 서로 상의해가며 수술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매우 루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수술 중 항상 어시스트와 집도의가 매 step마다 수술방향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시스트의 역할이 정말 어시스트만 하는 것이 아닌 집도의의 구두 지시에 따라 제2의 집도의와 같이 수술에 참여해 교육의 기회를 얻었으며 테이블의 양쪽에서 그때그때 역할을 바꿔가며 동선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수술은 한국에 비해 한 케이스당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움직임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의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좋은 방식임이 분명하였다. 그만큼 미국의 대학병원은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보다는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을 느꼈다. 수술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여건이 받쳐져 가능한 것이겠지만 '한땀한땀' 더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의 마취시간이 길어지는 downside가 있어 과연 이것이 환자에게 더 이로운지는 더욱 연구해볼 문

제인 것 같다.

둘째로 미국의 bedside manner의 막강함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환자-의사 관계는 의사 평점과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의사들이 환자에게 친절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행위 전에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화기애애한 상담 분위기를 만들고자 농담과 small talk를 언제나 장착하고 있었다. 물론 환자들이 스스로가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를 대한다는 점이 의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쉽게 하기도 한다. 쌍방의 노력이 있어 만들어진 좋은 의사-환자 관계였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의사나 환자의 노력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나 국민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미국의 수평적 분위기, 여유로움, 유머러스 함을 지향하는 소위 'chill'한 국민 감성으로부터 비롯된 관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역시나 대한민국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근하게 환자와 의사가 서로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환자-의사관계를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뿐만이 아니다. 위생에 관하여도 교수부터 학생까지 철저하게 생각하여 병실을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모든 인원이 손 소독을 하여 환자가 안전하게끔 느끼게 한다. 이런 점을 보고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인식개선이 이루어져 올바른 병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맺는 말

미국에서의 실습 경험은 정말 큰 자산이 되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의료를 처음 경험하고 다른 점들을 느낌으로써 어떤 방향의 의료가 더 나은 방향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막연하게 미국에서 practice 혹은 research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꼭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Green project에 감사 드린다. 차후 미국에 정착한다면 동창회의 일원이 되어 후배들에게 똑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